



이화동산
기도처
순례



이화여자대학교 교목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6

목차

인사의 글	06
대강당	08
중강당	10
애다 기도실	12
학생문화관 기도실	14
대학원기숙사 기도실	16
대학교회 예배실	18
다락방 전도협회 기도실	20
사범대학 기도실	22
자연과학대학 기도실	24
공과대학 기도실	26
팔복동산	28
한우리집 기숙사 기도실	30
이화역사관 기도실	32
ECC 기도실	34
E-House 기도실	36
법학전문대학원 기도실	40
조형예술대학 기도실	42
의과대학(목동) 기도실	44
의과대학 기도실	46
이대서울병원 방주교회	48
이화동산 기도처 약도	50



이화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리더십은

이화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민족의 수난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화 교육의 터전을 굳건히 해온 전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화의 캠퍼스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캠퍼스 구석구석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 조용히 자리 잡은 기도실이 있어서

이화동산은 보이는 것보다 더욱 아름답습니다.

선배들의 도움으로 정성스레 꾸민 기도실은 장래에 대한 염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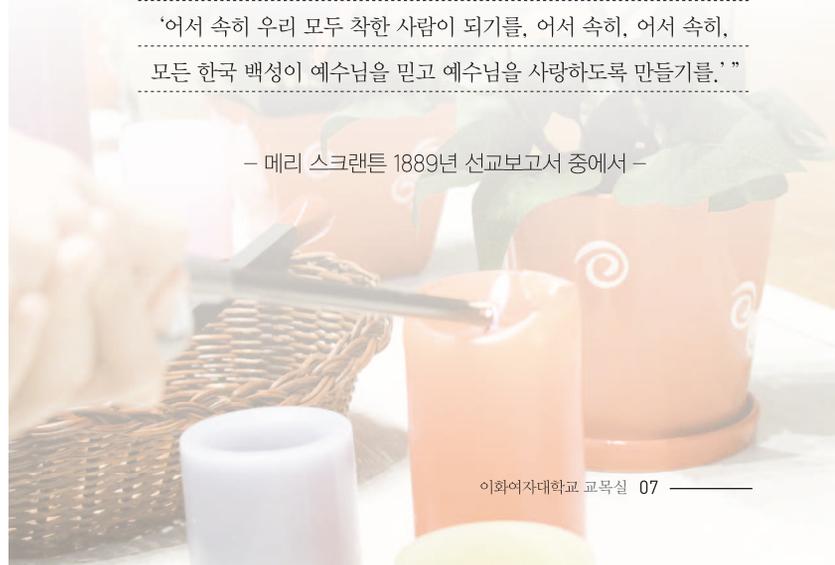
지친 후배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이화의 젊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소망이 전달되는 곳이 될 것입니다.

“2년 전, 기숙사 방 하나에 이런 식의 기도문이 적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크고 크신 하나님, 우리가 백배(百拜)하며 크고 크신 하나님께 빌고 또 비옵나니 높은 하늘에서 미천하고 미천한 인생들이 올리는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크고 크신 하나님께 비옵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운과 큰 성공을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 미천하고 미천한 인생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백배로 간구하나다.’ 물론 지금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만 여기 학생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과 믿음과 사랑으로 아버지께 나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행복한 환한 미소를 띠며 일어나는 학생들의 얼굴에서 믿는 대로 받는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얼마 전 한 학생이 이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어서 속히 우리 모두 착한 사람이 되기를, 어서 속히, 어서 속히, 모든 한국 백성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기를.’”

— 메리 스크랜튼 1889년 선교보고서 중에서 —





대강당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 시편 51:10 —

분주한 상가거리를 지나 정문에 들어서면 이화동산 위에 우뚝 선 대강당이 눈에 들어온다. 45개의 돌계단 위에 서있는 대강당은 계절마다 변화하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그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화강암으로 마감된 대강당 전면의 맨 위에 새겨있는 십자가는 소박하지만 웅골지다.

대강당은, 한국전쟁 직후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한다’는 신앙적 각오 아래 선대 선생님들이 정성으로 일구어 낸 기도의 집이다. 대강당은, 1956년 봉헌될 당시 이화의 전교생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 아래, 모두 4,058석으로 건립되었다. 그러다가 새천년을 맞이하여 동창들의 헌신으로 2,800여석으로 새 단장되었다.

대강당은 채플이 열리는 공간이다. 매일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에 직면한 학생, 교수, 직원이 대강당 채플에 모인다. 여기서 이화정신을 채우고, 복음을 듣고, 영혼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힘과 용기와 삶에의 의지를 얻어 이화동산 곳곳으로 흩어진다. 대강당은 이화 기독교정신의 상징이다. 이곳에서 이화 기독교정신이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다.



중강당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 요한복음 15:9 —

돌 건물 중앙에는 화강암으로 조각된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아치형의 진갈색 나무문 3개 사이로는 검은 테로 둘러친 등경이 은은한 빛을 비추고 있다. 그리 넓지 않은 로비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높은 천정과 우측의 긴 창문들이 옷깃을 여미게 한다.

낮은 미색의 벽면 사이사이에는 은은한 등경이 자리하고 있고, 자주색의 카펫과 진갈색의 긴 의자들과 창문에 무겁게 드리워진 진회색의 커튼, 그리고 마주 보이는 다소 높은 강단 벽면에 흐드러지듯 내려져 있는 십자가 흔적이 천 조각과 좌우 양쪽에 드리워져 있는 자주색 커튼과 작은 나무문은 세월 이전의 아름다움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2층으로 향하는 왼쪽의 좁은 계단을 오르면 낮은 피아노 한 대가 잠시 길을 막으며 옛 이야기를 건넨다.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 사랑의 속내를 가르쳐 주려는 듯—

현관 앞에 아름다운 뜰을 가진 중강당은 1935년에 건축되어 대강당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대학교회로 사용되었으며 대강당으로 불렸다. 그러나 1956년 대강당이 완성되면서부터 중강당으로 불리고 있다. 이곳에서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등의 절기에 교직원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이화의 한 해를 돌보심을 감사드리는 절기 예배가 행해지고 있다. 또한 대학원 채플을 드리며 신앙과 이화 정신을 전하고 있다.





애다 기도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 요한복음 14:6 —

본관 건물 중앙 높은 곳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13개의 돌계단을 밟고 건물 안 3층으로 올라가면, 중간 지점에서 진한 갈색의 낡은 나무문을 만나게 된다. 이곳이 1931년 이화여전 재학 중에 하늘나라로 간 김애다 동창을 기념하여 만든 ‘애다 기도실’이다.

‘여기는 조용히 묵상과 기도를 하는 장소입니다’라고 쓰인 팻말이 붉은 문을 밀고 들어서면 오랜 세월의 냄새가 코끝뿐 아니라 가슴에 스민다. 진갈색의 낡은 마루와 의자, 마주 보이는 창문 앞의 진갈색 강대상과 그 위에 펼쳐진 큰 성경책은 높은 타원형의 천정 몰딩 그리고 등경과 거룩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새삼 ‘이화’가 지닌 ‘믿음의 전통’을 추억하게 한다.

이 기도실을 ‘애다 기도실’로 명명하게 한 김애다 동창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신촌교사 이진문제로 고심하던 아펜젤러 교장과 함께 교사 이전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려 아펜젤러 교장에게 큰 힘을 주었다. 또한 5년 동안 투병하면서도 늘 학교와 이웃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의 신앙생활을 기념하고자 본관이 완성되던 1935년 본관 3층 이 자리에 기도실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이화의 기도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도실 중 하나로 이화가 쌓은 기도의 제단을 소리 없이 증거하고 있다.





학생문화관 기도실

(최순영·이형자 기도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 시편 119:9 -

학생문화관은 공연장,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생활협동조합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자치단체인 동아리들의 모임방이 모여 있는 명실상부한 이화여대 학생들의 문화공간이다. 학생문화관은 활기차고 신나는 움직임으로 꼭 찬 학생생활의 중심지이다. 바로 이 생동감 넘치는 문화공간의 2층 끝 방 241호에 기도실이 위치해 있다.



이곳 기도실은 예배실에 가까운 상당한 규모의 기도 공간이다. 이 기도실은 학생문화관을 새롭게 건축하면서,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한국 여성 고등교육을 담당한 이화여대의 학생들이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소망한 최순영·이형자님의 도움으로 기립하게 된 뜻 깊은 공간이다.

학생문화관의 기도실은 오늘도 분주한 학교생활 가운데에서 조용히 기도할 곳을 찾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이다. 또한 이 기도실은 이화여대 교정 안에서 활동하는 기독교아리 모임과 예배가 자주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이 기도실은 학교생활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길 바랐던 선배들의 건립이념이 실현되고 있는 현장이다.



대학원기숙사 기도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 신명기 10:19 -

2006년 개관한 대학원 국제기숙사(글로벌타워) C동 G181호에는 Oratory라는 이름의 작고 예쁜 기도실이 있다. 이름 그대로 작은 예배당이기도 하다.

기도실에 들어서면 중앙벽면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나온 십자가 뒤로 은은한 빛이 뿜어 나오며 방문자를 따뜻하게 감싸준다. 그 밑에는 아담한 원목 보편대 위로 커다란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여러 나라 말로 된 각국의 성경책들이 놓여 있다. 진등을 켜지 않아도 절로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게 만드는 방이다. 천정과 벽과 바닥이 모두 따뜻한 재질의 원목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어 여기에 들어오면 따뜻한 어머니의 품에 안긴 기분이다.

이곳은 세계 각국에서 이화를 찾아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그리운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곳이며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고 무사히 학업을 완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곳이다.



대학교회 예배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 이사야 60:1 -

박물관 뒤쪽으로 국제교육관과 나란히 대학교회가 있다. 흔히 보이는 첨탑이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현대식 교회 건물이다. 건물의 중앙 부분을 십자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철골 구조물이 십자가를 상징한다. 계단을 오른 후 교회 현관 안으로 들어가면 교회 사무실과 소예배실이 있고, 한층 더 오르면 대예배실이 있다.



현재의 대학교회는 2000년 5월 31일에 봉헌되었다. 1935년 9월 29일 중강당에서 시작된 대학교회가 교인들의 오랜 숙원을 바탕으로 독립된 건물을 갖게 된 것이다. 영안모자 그룹의 백성학 회장이 어머니를 기리며 기부한 기부금과 교인들이 오랫동안 모은 현금을 합하여 학교에서 제공한 부지 위에 아름다운 건물을 세웠다.

매주일 700명 정도의 교인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국 사회의 지식인들과 젊은 부부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서 주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다. 평일에도 아침에 출근하는 교직원들이 교회에 들러 기도하거나, 학생들이 조용히 명상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다락방 전도협회 기도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 요한복음 15:4 —

후문에서 서문쪽을 향해 내려오다 보면, 거대한 빌딩 숲 끝자락에 작고 낮은 하얀 돌 건물을 만나게 된다. 바로 ‘다락방 전도협회’다. 다락방 전도협회는 초대 총장인 김활란 선생이 중심이 되어 1960년 4월에 창립된 선교단체이다.



문을 들어서서 왼쪽으로 난 돌계단 18개를 오르면 왼쪽 벽면의 머릿돌과 육중한 나무문을 마주하게 된다. 김활란 선생은 다락방을 ‘기도하는 집, 전도하는 집’으로 만들기로 하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 때 기념으로 가지고 돌을 다듬어 머릿돌로 하고 거기에 ‘1964. 9. 5’라는 기공 날짜를 새겼다. 문을 무겁게 밀고 들어서서 좁은 로비를 지나 3층을 향해 가는 돌계단을 따라 오르면 나무 테이블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는 나무 팻말이 구도자를 반긴다. 그 양 옆으로 난 나무 출입문을 들어서면 ‘뽀그덕’하는 세월의 소음이 마룻바닥을 울린다.

이곳에서는 다락방 동아리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방학 때마다 선교 활동을 하며 다락방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동창 선교부도 매주 화요일 이 곳에서 모여 이화의 학원 선교와 전세계에 파송된 이화 동창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모임을 갖고 있다.



사범대학 기도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 요한복음 8:32 —

사범대학 기도실이 있는 교육관 A동 앞에 이르면 먼저 낮은 글자들이 방문자를 맞이한다. “ ἡ ἀλήθεια ἐλευθερώσει ὑμᾶς. ” 조각가 김정수 교수의 작품인 이 글자들은 신약성서의 언어인 헬라어(고대 그리스어)로 요한복음 8장 32절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뜻이다. 1967년 이 건물이 완공되던 해에 당시 김애마 학장은 기독교 정신과 사범대의 역사적 사명을 고취시킬 상징적 문구를 찾고 있었고 김옥길 총장의 조언에 따라 이 말씀을 선정하였던 것이다.

기도실은 이 건물 603호에 있다. 옥상 다락방 같은 이 기도실에 들어서면 ‘환영합니다’라는 예쁜 벽글씨가 방문자를 맞아준다. 성경공부와 세미나도 열 수 있을 만큼 넓직한 이 기도실에서는 실제로 정기기도모임과 성경공부가 열리며 예약되지 않은 시간은 개인기도 시간으로 개방된다. 기도실 한 칸의 낮은 책장에는 많은 신앙 서적과 영상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고, 낮은 벽면을 마주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쁜 색지 안에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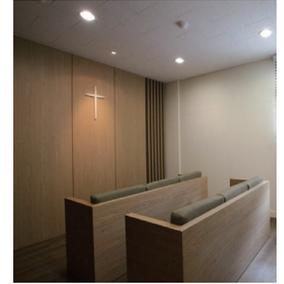


자연과학대학 기도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 이사야 56:7 —

포스코관을 오른쪽에 두고 공과대학 방향으로 가파른 길을 오르다 보면 오른쪽에 종합과학관이 눈에 들어온다. 종합과학관 A, B, C, D동은 오랜 기간에 걸쳐 완성된 이화 자연과학의 산실이다. 이곳에도 소박한 멋이 깃든 아담한 기도실이 있다. B동 315호. 자연대 교수님들이 30여 년간 기도하며 만든 거룩한 공간이다. 기도실은 자연대 행정실과 교수연구실을 방문하는 학생들로 붐비는 복도 입구에 있다.



기도실 문을 열면 먼저 다목적실이 나온다. 다목적실은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분주한 일상으로부터 단절을 도와주는 전이의 공간이다. 다목적실에는 서너 명이 앉아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탁자가 놓여있다. 탁자 너머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기도실에 이를 수 있다.

기도실 안에는 은은한 조명을 받고 있는 순백의 작고 가냘픈 십자가가 걸려있다. 자리를 잡고 앉으면 누구나 고요 속에 침잠하여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번잡한 일상 속에서 초월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2013년 3월 봉헌되었다.



공과대학 기도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 시편 37:4 -

대강당에서 공과대학으로 향하는 길은 무척 멀게 느껴진다. 몇 개의 언덕을 지나기 때문이다. 포스코관을 오른편에 두고 오르는 길은 경사가 무척 심한 편이다. 이 길을 오르다보면,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찬송이 절로 나온다. 순례의 길은 본디 쉽지 않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도 몸으로 체득된다.



어렵게 성지에 도달해서 맛보는 보람이 크듯 공대 기도실 문을 열어도 그렇다. 신공학관 지하 354호, 복도 끝에 자리한 기도실은 공간설계만으로도 일상의 어두운 통로를 지나 고요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빛을 만나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십자가는 따로 걸려있지 않다. 하지만 은은한 빛이 스며나와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다. 빛으로 만들어진 십자가 앞에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

공과대학의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오랜 시간 성경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교수, 재학생, 졸업생이 힘을 합해 마련한 모금을 통해 이 거룩한 공간을 만들었다. 듣기만 해도 감격스런 사연이다. 공대인들의 신실한 신앙에 감동받은 어느 건축인이 재능을 기부하여 디자인해주었다.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 2008년에 봉헌되었다.



팔복동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마태복음 5:1-3 -

이화역사관 옆 높은 언덕을 올라 한우리기숙사가 보이는 능선에 다다르면 <이화인들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팔복동산>이라는 자그마한 팻말이 하나 보인다. 숲 속 샅길을 잠시 오르면 동그란 분지가 하나 나오고 24개의 그루터기 나무들과 조각품 같은 돌 제단이 하나 놓인 곳이 나온다. 여기가 바로 이화의 유일한 야외 기도처인 팔복동산이다.

팔복이란 예수께서 어느 날 산에 올라 무리를 가르치시며 선포하신 여덟 개의 복을 가리킨다.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자비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평화를 만드는 자, 그리고 정의를 위해 일하다 박해 받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여덟 개의 복이다.

이곳 팔복동산은 나무들을 벗 삼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시원한 나무그늘은 동산을 오르느라 맺힌 땀방울을 식혀주고 잔잔한 마음의 평안을 준다.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는 내가 입을 열지 않아도 이미 내 영혼의 간절한 기도를 하늘로 실어 나른다. 나뭇잎 사이로 간간이 쏟아지는 밝은 햇살은 이화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어른거린다. 어느덧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이 우러나온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세계에 대한 감사와 경탄이 솟아나온다. 이곳은 김옥길 전 총장이 즐겨 찾아 기도하셨고, 이화를 사랑하는 여러 교직원들이 모여 아침 기도회를 갖던 곳이기도 하다.



한우리집 기숙사 기도실 (승민 기도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 시편 86:6 —

한우리집 기숙사는 이화캠퍼스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동산 위에 위치하며, 지방 출신의 신입생을 위한 A동과 재학생을 위한 B동 및 국가고시 준비생을 위한 솟을관 등 900여명의 사생들이 생활하는 집이다. 이곳 한우리집 기숙사에서 늘 보호해 주던 부모님과 익숙한 집을 떠나 대학생활을 하는 사생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한우리집 기숙사 지하 105호에 위치해 있다.

한우리집 승민 기도실은 1999년 2월 23일, 한우리집 개관과 함께 하늘나라로 먼저 간 자녀 승민이를 추억하고, 이화의 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박인자 동창의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은은한 조명이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며, 피아노, 찬양악보, 찬송가, 성경 등이 비치되어 있는 한우리집 기도실은 집을 떠나서 대학생활을 하는 사생들의 개인 기도과 사생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과 기도모임을 하는 은혜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화역사관 기도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 요한복음 14:27 -

이화 창립 120주년을 기념하여, 정동 황화방에 있던 이화 한옥 교사를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한 이화역사관은 본관과 헬렌관 사이로 난 비탈길을 오르면 만날 수 있다. 새로 복원된 한옥 교사는 마치 두 팔 벌려 이화 캠퍼스를 품어 안듯 굽어보고 있다.



한옥의 처마 끝은 참으로 단아하다. 이화역사관의 화강암 계단을 올라 신발을 벗고 1층으로 들어서면, 120년 이화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이화정신을 돌아 볼 수 있는 이화역사 전시관과 마주하게 된다. 이화역사 전시관은 12가지 이야기를 시대 순으로 나누어 상설전시를 하고 있다. 사이사이의 빈 공간은 이화학당의 옛 스승들과 제자 및 선배와 후배의 만남을 위한 편지실로 꾸며져 있다.

기도실은 이 전시관의 끝자락에서 만날 수 있다. 기도실은 이화 120년 믿음의 역사를 감사하며 오늘의 ‘이화’가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계 곳곳에 그 열매를 나누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구체적으로 소망하며 간구하는 곳으로 마련되었다. 기도실 앞에는 이화학당 시절, 기숙사에서 사용하던 ‘종’의 모형이 하나 놓여 역사를 전하고 있다.



ECC 기도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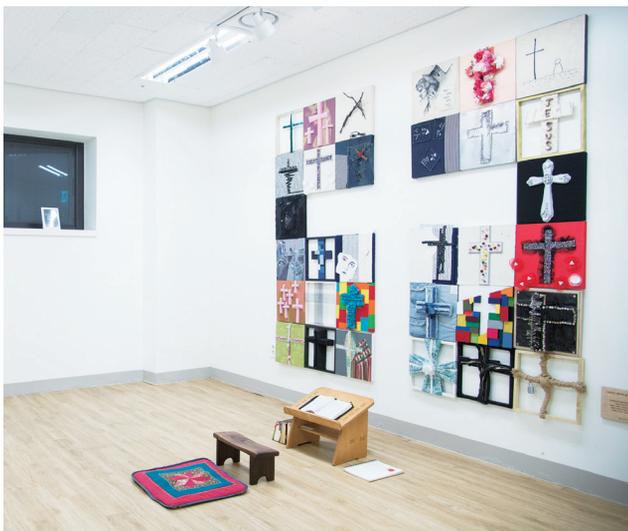
- 요한복음 1:14 -

이화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 지하2층 B 261호에는 '이미화 기도실'이라는 이름의 작고 아름다운 기도실이 있다. 기도실의 위치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ECC 열람실 바로 옆이라 공부에 지친 학생들이 쉽게 찾아와 기도하고 명상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정문과도 가까운 곳이라 등하곳길의 학생들이 잠시 들러 학업과 진로, 취업,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으로 힘든 마음을 내려놓고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이 기도실은 최귀란 동문(약학 56년 졸업)이 딸 이미화 동문(사회 82년 졸업)을 위해 기부하며 시작되었고 이화여대 대학교회 교인들의 기부로 완성되었다. 이 기도실은 특히 김찬중 건축가의 재능기부로 아름다운 예술공간으로 탄생하였다. 두꺼운 원목으로 된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가면 짙고 푸른 나무향기가 지친 심신을 달래준다. 기도실을 가득 에워싼 나무벽은 수많은 블록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로 들어오는 자연채광은 마치 하나님의 계시와 은총을 말해주는 것 같다.

기도실 앞에는 특별한 십자가가 놓여 있다. 지구를 반으로 자른 것 같은 반구의 원목 안에 깊이 십자가가 패여 있고 그 속에서 은은한 빛이 우러나온다. 빛과 향기의 조화 속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경험하며 깊은 위로와 안식을 얻는다.



E-House 기도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 히브리서 4:16 —

2016년 8월에 완공된 E-House 기숙사에는 네 곳의 기도실이 있다. 안산 자락에 아기자기하게 위치한 E-House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이국적이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 기도하기에 좋은 기숙사이다. 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세련미를 풍기는 각각의 건물들에 위치해 있는 기도실들은 이러한 E-House의 분위기와 느낌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202동 B175실에 위치한 기도실은 작은 제단과 기도의자를 갖추고 있으며 전면에 위치한 고동색 십자가에는 형광등이 있어 불을 켜면, 하얀 불빛이 하얀색 벽면으로 번져가며 경건하고 신비스러운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204동 B278실에 위치한 기도실은 다른 E-House의 기도실보다는 공간이 넓은 편이다. 대학교회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이 기도실은 전면에 조형예술대학 패션디자인전공에서 제작한 다양한 십자가들이 있어 예술적인 감성을 느끼면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302동 B176실에 위치한 기도실은 좁은 장소이지만 벤치의자를 설치해 여러 명이 함께 기도할 수 있다. 전면 좌우 바닥에 조명 시설이 있으며 여기에서 나오는 하얀 불빛이 전면 중앙에 위치한 하얀 십자가를 비추고 있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준다.

304동 B176실에 위치한 기도실은 성경을 올려 놓은 제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면 중앙에는 하얀색 돌들로 엮은 듯한 울퉁불퉁한 십자가가 위치해 있다. 그렇기에 이 기도실은 위에서 내려오는 불빛 조명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안산자락의 주변환경과 절묘하게 어우러져 맑은 공기와 청명한 하늘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E-House는 기도와 경건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이다. 학기 중에 집을 떠나 E-House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가까이 위치한 이곳 기도실에서 경건의 묵상시간을 가지며 사랑과 나눔의 이화정신을 배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자신의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기도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 빌립보서 4:6-7 —

중앙도서관을 지나 언덕을 올라오면 이화역사관 한옥을 마주하고 단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두 동의 건물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자리이다. 이화 유일의 옥외 기도공간인 팔복동산과 거리상 가장 가깝다.

법학전문대학원 기도실은 신관 4층 자유열람실 내부에 있는 작은 공간에 마련되어 있다. 법학전공 학생들의 정기적 신앙모임(법기독)과 교수 성경공부모임은 역사가 깊다. 이 모임을 중심으로 법전원 건물 안에 기도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고, 이 소망은 2021년 7월에야 이루어지게 되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유열람실 내부에 있는 작은 방에 십자기를 걸고 기도실이라고 문패를 달게 되면서 그 오랜 소망은 이루어졌다. 아주 아담하고 포근한 공간이다.

이 소박한 공간, 새 기도실이 공부의 열기가 넘치는 자유열람실에 자리 잡은 것은 그 뜻이 깊다. 공부에 열심을 내다가, 때로 지치고 실의에 빠질 때마다 학생들이 고개를 돌려 하늘을 향해 도움을 구하고 영성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곁에 있기 때문이다. 이 소박한 공간에 머무는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깃들기를 빌어본다.





조형예술대학 기도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마태복음 6:33 -

조형예술대학 기도실은 조형예술대 B동 409호에 위치하고 있다. 이 방은 조형예술대 기독교 동아리 AFC(Artist For Christ)가 모여 기도하던 곳이었다. 패션디자인 전공의 김정혜 교수의 기부로 새롭게 단장하고 2020년 8월 20일 <조형예술대 기도실>로 명명했다.

AFC 동아리는 1992년 서양화전공 92학번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경건의 시간을 나누었던 것이 모태가 되어 이후 미대 기독교인들의 기도하는 모임인, ‘카타콤’이 되었다. 카타콤은 2005년에 ‘Artist For Christ’ 약자인 AFC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김영기 교수(시각디자인 전공), 김정혜 교수(패션디자인 전공)를 거쳐, 현재 주보림 교수(패션디자인 전공)가 맡아 지도하고 있으며 매주 기도 모임을 갖고 있다.

기도실 중앙에 위치한 빛나는 큰 십자가를 바라보면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마음 깊이 찬양을 드리게 된다. 사방이 하얀 이 공간 안에 들어서면, 우리 영혼도 맑고 깨끗해지는 느낌이 다. 이곳에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고 싶어진다. 십자가를 대면하는 벽면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려주는 마태복음 6:33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창작의 고통을 감당하며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란다.





의과대학(목동) 기도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 말라기 4:2 -

이화여대 의과대학은 명실상부 국내 여성의료인 양성의 산실이다. 목동병원 의학관 건물은 의학 공부에 여념 없는 의학도들의 발길로 분주하던 곳이다. 의학관 B동은 학생실습실과 각종 학생자치 및 복지 공간, 강의실과 대회의실, 서브인턴실, 세미나실, 그리고 다양한 연구센터가 위치해 있던 곳이다.

이곳 의학관 B동 712호에 의과대학 기도실이 위치해 있다. 이 기도실은 2006년 3월 13일 남가주 의대 동창회, 모교 총동창회 선교부와 변재일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의과대학 기도실은 24시간 개방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의학도들이 즐겨 찾던 곳이다.

이 작은 방에 들어서서 신발을 벗고 기도할 때, 힘든 공부와 환자들의 고통을 치유해야 하는 의학도들이 큰 위안과 힘을 얻게 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작은 공간에는 십자가 앞에 놓인 작은 책상 위에 펼쳐진 성경과 기도문들이 빼곡히 쓰인 공책이 눈에 띈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학도들의 간구가 들리는 작지만 큰 은혜가 넘쳤던 곳이다.

의과대학이 2019년 마곡 캠퍼스로 이전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의과대학 기도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느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 시편 62:1-2 —

TV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 을제병원으로 나오는 촬영지는 이대서울병원이다. 갤러리인지 병원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고 웅혼하게 이 병원의 외장은 본교 ECC 유리 건물을 닮아 한눈에 이화와 같은 DNA임을 알게 한다. 병원 건물 뒤편에는 아담한 한옥 한 채가 서 있다. 바로 이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구녀관(普救女館), 즉 '널리'(보편적으로) '여성'을 '구원'하는 '집'으로, 130여 년 전 차별 받던 이 땅의 여성들은 따뜻하게 품으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다. 이 역사적인 한옥 건물 뒤로 병원 건물과 구름다리로 이어진 의과대학 건물이 있고 그 깊숙한 한가운데 의대 기도실(B115호)이 있다.

기도실은 여러 동아리방들 가운데 있으며 학생들에게 접근성이 좋다. 학생들에게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와 고민과 염려를 털어놓을 수 있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일상 속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의과대학 기도실은 문을 열면 깔끔한 원목 디자인의 작은 공간이 따뜻하고 차분한 느낌을 준다. 바로 위의 전등에서 내려오는 빛을 통해 십자가와 성경책이 거룩하고 포근한 느낌을 형성한다. 스물네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각적으로 느끼게 한다.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막중한 부담감을 안고 공부하는 의대생들이 이곳에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드릴 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이곳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빼어난 의술과 인품을 지닌 의사가 태어나는 요람이 되기를 빌어보자.



이대서울병원 방주교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 베드로전서 5:7 —

발산역 8번 출구로 나오면 2019년 5월 23일에 개원한 이대서울병원이 나타난다. 방주교회는 이 병원 3층에 위치한 병원채플로 예배실 및 부속 기도실로 이루어져 있다. 병원 건물은 2020년 서울시 건축상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는데, 방주교회는 이 아름다운 병원 건물 중심에 방주 바다 모양 위에 자리 잡고 있고, 내부 공간은 이화여대 대학교회의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이화의료원의 전신인 보구녀관(普救女館)은 조선의 병들고 가난한 여성들을 위해 선교사들에 의해 1887년 10월 31일에 세워졌는데, 이화의료원은 “사랑의 기독교 정신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구한다”는 미션으로 이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보구녀관의 정신과 이화의료원의 사명을 따라서 방주교회에서는 환우와 가족이, 또 교직원이 예배를 드린다. 뿐만 아니라 이 방주교회에서 기도회를 포함한 다양한 특별 행사가 진행된다. 환우와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구하고, 교직원들은 이화의료원이 선교병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전심으로 바라며, 햇살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십자가 앞에 오늘도 머리를 숙이고 있다.

이대서울병원에 오는 누구든 이곳에 들러 가만히 앉아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유되기를 빌 수 있다.

약도

이화동산 기도처



- 1 대강당
- 2 중강당
- 3 애다 기도실
- 4 학생문화관 기도실
- 5 대학원기숙사 기도실
- 6 대학교회 예배실
- 7 다락방 전도협회 기도실
- 8 사범대학 기도실
- 9 자연과학대학 기도실
- 10 공과대학 기도실
- 11 팔복동산
- 12 한우리집 기숙사 기도실
- 13 이화역사관 기도실
- 14 ECC 기도실
- 15 E-House 기도실
- 16 법학전문대학원 기도실
- 17 조형예술대학 기도실
- 18 의과대학 기도실 (목동)
- 19 의과대학 기도실 (마곡)
- 20 이대서울병원 방주교회 (마곡)



Memo

.....

.....

.....

.....

.....

.....

.....

.....

.....

.....

.....

.....

.....

.....

.....

.....

.....

.....

.....

.....

.....

.....

.....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11-13

이화동산 기도처 순례

발행일 2021. 10

발행인 이화여자대학교 교목실

글 안선희, 양현혜, 이윤경, 장윤재, 장정은 (기독교학과)

사진 황규호(교육학과) 외

이 책자는 약학대학 최선 교수와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김미정 교수의 후의로 발간되었습니다.

이화동산
기도처
순례



이화여자대학교 교목실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 106호

TEL [82-2]3277-3119 FAX [82-2]3277-3120 E-Mail chaplain@ewha.ac.kr